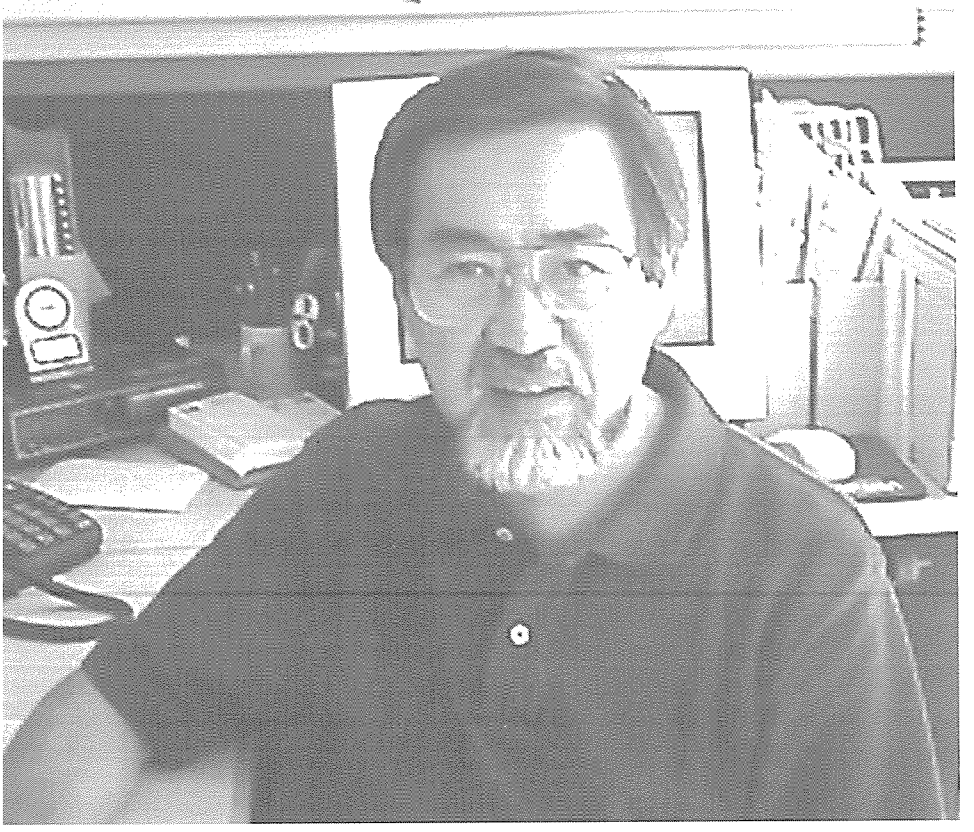

#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韓弘澤 회장

전화대담 / 李光榮 본지 편집위원
일자 : 7월 27일

# "在美 2세 과학자들 협회 참여 유도"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신임회장 한홍택박사는 본지와의 대담을 통해 "앞으로 재미 2세 과학자들이 고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늘리고 8월 12일부터 열리는 한미종합학술대회에도 2세들이 많이 참여토록 했다"고 말했다. 한박사는 가볍고 강한 특성을 지닌 항공우주 구조물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복합소재의 설계와 제작에 관한 연구로 올해의 호암상 공로부문 대상을 받았다.**

■ 바쁘신 가운데 「과학과 기술」지를 위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한홍택(韓弘澤)박사께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소감의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서 재미과협 회장이란 큰 직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해야할 것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의 협조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그동안 해 온 중요한 일과 현황을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 "조국건설 참여에 보람"

재미과협이 그동안 해온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도 재미 과학기술 인재들이 조국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직접 간접으로 도운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국에 돌아와 활약하시는 분들 중에는 재미과협의 중요직책을 가지셨던 분들도 많이 있고 또 회원의 자격으로만 있던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도 재미과협으로 인하여 모르는 중에 서로간의 유대가 강화되고 조국에의 관심도 더 높아졌다고 봅니다.

■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의 당면과제는 무엇입니까.

현재 재미과협의 학력별 회원분포를 보면 학사학위 소유 회원의 비율이 갑자기 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의 박사과정이 활발해져서 대학원 유학생 수가 줄어든 결과이기도 하지만 미국내에서의 2세들이 많아진 결과라고도 보겠습니다.

앞으로 2세들이 고국에 대한 관심이 많도록 하는데는 재미과협의 역할이 더 크므로 현재 2세들의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에 열린 2세 지도력 대회(Young Generation Leadership Conference)를 계기로 재미과협 내에 2세그룹이 형성되어 이번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한미종합학술대회에 2세들의 참여가 많으리라 기대됩니다.

■ 회장 임기동안에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현재 재미과협은 과도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1세들의 모임에서 미국에서 자라난 2세들의 모임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도 이젠 선진국의 대열에 끼고 있습니다. 재미과협도 이에 맞도록 Strategic Plan을 세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려고 합니다.

재미과협의 목적은 크게 보아서 3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한미간의 우호적 협조를 증진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회원들의 출세의 길을 넓히는 것이며 셋째는 사회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 목적을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이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입니다.

■ 회장 임기동안에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회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랑스러운 협회가 되도록 여러 면에서의 구조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전산화와 Internet을 통하여 회원과의 통신을 증진시키고 협회의 홍보를 강화하며 자체내의 행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새로운 정보통신사회에 걸맞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둘째는 가능한 한 많은 회원들이 협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을 투명화시키고 분산화시켜서 회장 이외의 Principal Investigator 중심으로 사업의 계획과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셋째는 방금 형성된 2세그룹을 토대로 그들의 참여를 증대시키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 실천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서 본부중심 보다는 지부중심으로 하도록 예산에 반영시켜 지부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다섯째는 과학기술을 토대로 한 기업경영인들의 협회 참여를 증대시켜 과학에서 기업까지의 길을 단축시키고자 합니다.

여섯째는 지부를 중심으로 개인적 접촉을 통해서 우리 회원명부를 증판함으로써 한미협조를 좀더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싶습니다.

일곱째로는 회원들의 공적을 널리 홍보해서 그들의 진급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여덟째는 KSEA Letters가 재미과학기술자 뿐 아니라 한국의 과학기술 현황을 미 주류사회에 알리는 참된 협회의 얼굴이 되도록 개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협회의 취지를 이해하시는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8월대회 계기 구조조정

이런 면에서 이번 8월에 열리는 종합학술대회가 협회의 구조조정을 위한 저희들의 시도를 단면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과학기술분야의 논문 뿐 아니라 기업, 정치, 법률, 사회사업 등 여러 분야의 인사들이 연사로 되어 있습니다. 재미과협이 과학기술자만의 모임에서 벗어나 범 교민사회를 위한 협회로 탈바꿈을 하는 첫번째의 시도이기도 합니다.

■ 정부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우수한 한국인 과학기술자들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레인풀 제도가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 조언이랄까 보다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해야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정부에서 해외 과학기술자들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해외과협과의 연락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힘든 것처럼 외국인의 눈에 보이는 한국은 한국 내에서 보기가 힘드니까요. 또한 해외과협을 통하는 것이 해외과학기술자들의 단결에도 많은 도움이 되어 결국은 한국에 혜택이 되돌아가게 되지요. 해외 한인들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려면 처

음부터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장 필요한 분야의 사람들은 현직에서 시간을 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브레인풀 제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Web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벌써 많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명맥 상의 제도만으로는 효과가 없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도를 수립하는 분들이나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 참뜻을 이해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우리가 건강음식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대로 먹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도를 세우지만 말고 참된 실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박사께서는 올해 '호암상' 공학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수상내용이 가볍고도 매우 강한 특성을 지닌 항공우주 구조물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복합소재의 설계와 제작에 관한 독창적인 연구업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업적에 대해 좀더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것입니다.

## 30년간 복합재료 연구

저보다 훌륭하신 과학기술자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호암상'이란 큰 영광을 갖게 되어 무한한 기쁨과 함께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위 취득 후 거의 30년간 한 일은 어떻게 하면 복합재료를 구조물에 효율적으로 쓰고 또 값싸게 제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합재료는 글자 그대로 여러 가지 재료를 합쳐서 만든 재료로서 가벼우면서 강도가 높은 것이 주요 장점입니다. 처음에는 가격상 새로운 군용 비행기와 우주구조물에 주로 쓰이던 것이 이제는 건축이나 차량에도 점차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Tennis Racket이나 Golf Shaft를 들 수가 있지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경량화, 구조물의 단기내 수리, 보온이나 냉동을 위한 절연, 화학물질에 대한 내부식성 증가, 그리고 건강을 위한 소음감소 등이 필요할 때에는 복합재료가 많이 쓰이리라 생각합니다. 이 분야도 한국이 과감히 외국을 앞설 수 있는 기술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 현재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학문 쪽에서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은 어떤 것인지요.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하면 복합재료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해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두가지 방법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Information Technology를 쓰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동안 축적해 놓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복합재료의 설계 제작에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복합재료를 사용한 Smart Structures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생물이 외부의 자극에 무의식중에 대응하는 것과 같이 구조물도 자신이 알아서 대응토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골프의 스윙을 좀 잘못하더라도 저절로 공이 잘 맞는 클럽이 있다면 많은 골프 애호가들이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 한국은 IMF사태 이후 연구개발면에서 크게 후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우선해서 연구개발부서를 크게 축소조정한 데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언하실 말씀이 있다면--.

기업들이 경제사정이 나쁠 때 연구개발 면에서 후퇴하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인들은 불평을 해도 경영인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화위복이라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그동안 바빠서 할 수 없었던 Idea들을 연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박사과정 학생들이 취직난을 겪을 때 정부가 Internship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정말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끝으로 가족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집사람(백 훈)은 서울미대를 저보다 1년 후에 졸업했고 현재는 집에서 제가 하는 편집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딸들 셋 중에서 첫째(혜련)는 하버드(학사)와 스탠포드(석사)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Microsoft에서 남편(Dick-man)과 일하고 있습니다. 둘째(혜진)는 MIT에서 미생물학을 전공하고 UCLA에서 MD/PhD 프로그램으로 아직 공부하고 있습니다. 셋째(진이)는 Stanford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Microsoft에서 인터넷 관계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막내가 과학계통이 아니라 좋아했는데 결국은 또 그 쪽에서 일을 하게 됐지요. ST